

제4회 고능력유우 평가경매 및 품평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획부 부장 정진무

고능력유우 평가경매 행사

1. 고능력유우 평가경매 행사의 배경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낙농선진국에 비하여 낙농의 역사는 짧지만 사육농가와 사육두수의 증가나 우유생산량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낙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많은 젖소를 수입하여 농가에 입식시키고 지도를 하여온 결과 양적인 면에선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식위주의 낙농산업이 이제는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농가들은 더한층 마음을 가다듬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종축개량협회에서는 전국에서 개량에 대한 집념과 열의를 가진 농가들을 규합하여 교육을 통한 기술지도를 하여 이들 농가에 대한 혈통관리와 심사에 의한 계획교배는 물론 생산능력을 공인할 수 있는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1986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 결과 3년후인 1989년부터 그결실을 보게 되어 1989년에 제1회 대회를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실시하여 대 성공리에 마치게 된대 자신감을 갖고 금년도에 제4회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결실은 더욱더 커져서 출품우의 능력도 유지량306kg(9,000kg×3.4%)이상의 낙농선진국 수준보다도 우수한 능력의 후대가 출품되는 매우 희망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산유능력 검정농가들은 이제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산유능력 검정농가들의 급년(4000두검정)평균 산유능력이 7,300kg에 이르고 있으며 1만kg이상의 고능력우만도 200여두 이상이 예상되는 것을 볼때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길은 오로지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산유능력 검정농가들은 자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많은 농가에게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아직까지 개량사업에 참여치 못한 농가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고능력유우 평가경매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낙농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산유능력 검정농가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2. 행사의 목적

- 1) 젖소개량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농가가 직접 능력을 보고 실물을 비교 평가하는 장소를 마련하여 개량의 열기를 확대 보급시킨다.
- 2) 젖소 개량농가(BREEDER)의 중점적인 지도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
- 3) 혈통과 체형 능력에 따라서 젖소의 가격 형성이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도록 젖소 시장의 거래제도를 확립한다.
- 4) 관주도의 행사가 아닌 순수한 민간차원

의 행사로써 개량농가가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주관하는 농민의 행사로써 축제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개량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든다.

3. 행사계획

- 1) 일 시: 1992년 10월 23일 (금요일)
- 2) 장 소: 수원가축시장
- 3) 출품두수: 육성우 40, 초임우 20
- 4) 주 최: 한국종축개량협회
- 5) 주 관: 한국낙농경영협의회
- 6) 후 원: 농림수산부·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 7) 협 찬: 축산신문사·농수축산신문사·
한국농어민신문사

4. 출품우규격 및 능력표기

1) 출품우규격

- 1) 혈통 : 본등록이상
- 2) 출품우능력 : 어미 성년형 유지량 306kg($9.000\text{kg} \times 3.4\%$)이상의 후대축으로 한다. (단 산유량이 9.000kg이 미달되더라도 유지량이 306kg이상시는 출품가능)
- 3) 육성우 : 생후 8개월령이상~14개월령 미만
- 4) 초임우 : 15~18개월내 수정된 소로 임신8개월 미만우

2) 능력표기

- 1) 미국 : 유량과 유지량, 단백질은 kg으로 표기
- 2) 캐나다 : 캐나다 지수를 사용하고 유량과 유지량, 단백질은 kg으로 표기
- 3) 출품우 어미능력 : 실산유량과 실유지량, 성년형 산유량과 유지량으로 표기

5. 경매 내정가격 산출

1) 육성우 가격

- 1) 기준가격 : 초유떼기 가격-100만원
(시세변동에 따라 유동적임)
- 2) 등록구분가격
 - 본등록우(모→기초등록우)-5만원
 - 혈통등록(모→본등록우)-10만원
 - 혈통등록우(모→혈통등록우)-20만원
 - 혈통등록우(모→고등등록우)-30만원
- ③ 어미능력 : 성년형 유지량 238kg($7.000\text{kg} \times 3.4\%$)기준, 1kg 증가시 2,500원 추가산정.
- 4) 어비능력
 - ① 미국- PTAM 700파운드기준, 100파운드 증가시 70kg×383원(3.4%)추가산정
PTAT 1.0이상~2.0이하 : 5만원
2.0이상 : 10만원
 - ② 캐나다-BCAM 4기준, 1증가시 70kg×383원(3.4%)추가산정
FC 1이상~7이하 : 5만원
8이상 : 10만원
- 5) 월사육비 : 7만원(임신확정후부터 10만원)

2) 초임우 가격

육성우 산출가격+수정정액가격의 2배수+월사육비 10만원(임신월령부터)+임신보상비(50만원)

6. 산출예상가격

1) 육성우 예상가격

- 혈통등록우(어미→혈통등록우)로서 어미의 성년형 유지량이 320kg이고 어비의 능력이 PTAM+1.700파운드, PTAT

- 2.0이상으로 10개월령의 육성우
- 내정가격 = 초유떼기가격 + 등록구분
가격 + 모능력 + 부능력 +
사육비
= 100만원 + 20만원 + 20만
원 + (26만원 + 10만원) +
70만원
= 246만원

2) 초임우 예상가격

- 혈통등록우로 (어미→혈통등록우)로서
어미의 성년형 유지량이 320kg이고 아
비의 능력이 PTAM+1.700파운드,
PTAT 2.0으로서 생후 20개월된 초임
우로서 3만원대의 정액으로 수정된 임
신5개월령된소
- 내정가격 = 초유떼기가격 + 등록구분
가격 + 모능력 + 부능력 +
육성우시 사육비 + 임신우
시 사육비 + 정액가격 + 임
신보상비
= 100만원 + 20만원 + 20만
원 + (26만원 + 10만원) +
105만원 + 50만원 + 6만원
+ 50만원
= 395만원

7. 젖소경매응찰방법 및 숙지사항

고능력우 경매에 응찰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에서 행사전에 경매우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낙우회, 유업체 축산관련 단체에 발송을 하며 그밖에 축산관계신문, 잡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경매우에 대한 능력과 제반사항을 공고할 예정이오니 응찰 희망자는 우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자기 목장의 관리능력과 제반 여건등을 감안하여 마음에 드는 소를 미리 결정을 하고 경매당일에는 직접 실물을 보고 건강상태를 최종점검한후 응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응찰자는 주민등록증

과 인장을 지참하고 행사에 참여하길바라며, 운송비의 절감을 위하여 같은 낙우회 소속회원들이나 이웃농가가 공동으로 구입하여 합동으로 운송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오니 유의하기 바란다.

8. 행사의 효과

최근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국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에 시달리고 있다. 내적으론 특히 인력의 부족현상이다. 모든 산업이 다같은 현상이나 특히 낙농업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으로 고가의 인건비를 지불하여도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 낙농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음으로 국제개방화시대에 따른 경쟁력의 상실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연건변화로 낙농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처분을 하고 전업을 할것인가 하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적당히 목장을 하는 농가들을 볼때는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땅에 우리의 낙농산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볼때 많은 농가들에게 개량을 통하여 선진낙농국이상으로 능력이 개량된 고능력우의 평가 및 경매행사를 통하여 우리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나도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이런 행사를 통하여 심어줄수 있으며, 우량종축을 많은 농가에 분양하여 우수한 유전인자의 확산으로 우리의 낙농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젖소의 가격형성이 선진낙농국가와 같이 젖소의 특성을 살리고 혈통, 체형, 산유능력검정성적에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능력에 따른 젖소거래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1. 고능력우 품평회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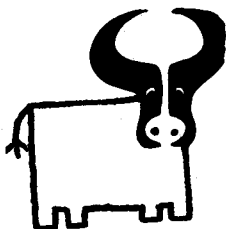
그동안 본회 산유능력 검정농가들이 평가 경매 행사시에 이동이 용이하고 스트레스가 가급적 적은 육성우와 초임우만을 출품하여 행사를 하여 왔으나 낙농선진국의 행사를 보더라도 다양한 부문에 출품을 하여 참관농가에게 많은것을 보고 배울수 있는 종합적인 행사로 변모해 가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농가들도 능력이 우수하고 체형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잘 발달된 경산우가 출품되지 않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여 오던차에 본회 산유능력 검정농가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금년 제4회 부터는 경매 행사와 더불어 고능력우 품평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많은 농가들이 개량의 모델로 삼도록 하고자 한다.

2. 출품규격 : 성년형 유지량 306kg 이상
우(9.000kg × 3.4%)

3. 출품두수 : 10두 내외

4. 우수축 표창 : 산차별(1~5산) 최우수· 우수축을 표창하며, 전체 출품우중 최우수축과, 유방부위 최우수축에게 표창을 한다.

5. 출품우 운송보조 : 출품우는 출품농가가 책임하에 운송을 하되 두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운송비를 보조할 예정이다.



출품우의 털은 왜 깎는가

출품우를 보다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털을 깎고, 또한 위생적인 우유의 생산과 일상관리를 위해서도 털을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품우는 털을 깎고 손질을 하여 경매장에 출품을 하므로써 그 자태를 돋보이게 하여 경매 가격을 높일수가 있으며, 털을 깎는 동안 출품우와 주인과의 친근감을 갖게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털깎는 요령

1) 먼저 출품우의 아름다운 부분과 보기 좋지 못한 부분을 판단하여 어느 부위의 털을 깎고 어느 부분의 털을 살려야 하는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품우의 몸을 깨끗이 닦고 소를 잘 볼수 있는 편평하고 밝은 곳에 고정시킨 후 털깎기는 좌측으로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며 경매시 소의 우측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측의 털을 깎는데 실수가 없도록 좌측의 털과 상태를 비교하여 가면서 깎도록 하며 몸전체의 조화를 봐가면서 깎아야 한다.

2) 털을 깎는데 필요한 기구와 용품은 이발기·털깎는 가위·술이 필요하다. 털을 많이 깎아본 능숙한 사람은 깎는 부분이 매끄럽게 이행되어 깎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털깎기를 하자면 필요에 따라선 이발기를 뒤집어서 사용할때도 있으며 턱의 곁을 역으로 깎는 경우도 있다.

이발기는 가급적으로 소의 몸에 밀착시키고 이발기를 잡은 손은 고정시켜 이발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때 이발기가 몸에서 떠워서 깎으면 털이 고르지

- 못하여 얼룩지게 된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출품7일전에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꼬리는 미방(尾房)의 위쪽부터 미근(尾根)쪽으로 깎아 올라간다. 미방의 털은 깎지말고 잘부풀리어 풍만하게 하는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깎기 시작한 자리가 너무 위쪽이든가 아래쪽이 되면 균형이 잡히지 않으므로 보통 꼬리의 선단으로부터 손으로 3번정도 권 위치에서부터 깎아 올라가는 것이 좋다.
 - 4) 엉덩이는 배선(背線)으로부터 평활(平滑)하게 이행(移行)하고 엉덩이의 모양이 잘 나타나도록 깎으며 엉덩이가 경사진때에는 털을 빗어 세웁으로써 길고 수평한 엉덩이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목은 길고 얇게 깎고, 어깨와 가슴을 평활하게 나타나도록 깎고, 견단(肩端)과 기갑(기甲)을 잇는 선에서부터 앞으로 5cm정도의 폭을 남겨놓고 깎으며 털흐름으로 보아 아래서 위로 깎아 목의 세로 주름이 잘 나타나도록 깎는 것이 유용 특징을 잘 나타나게 한다. 가슴너머미의 털도 깎아 윤곽이 선명토록 한다.
 - 6) 몸통은 가슴과 기갑으로의 이행이 평활하고 중구(中驅)와 어깨가 잘 결합이 되도록 깎으며 견단에서 기갑부에 걸쳐 남겨진 털을 이용하여 거칠어 보이지 않게 손질을 하며, 솔로 털을 세우고 이발기를 뒤집어서 사용하되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여 깎아내린다. 또한 어깨뒤의 이행도 전과 같이 털을 세우고 이발기를 세워서 이용한다.
 - 7) 엉덩이는 길고, 넓고 충실하며 허리에서 미근까지 상면이 수평인 것이 좋다. 요각이 넓고 등과 허리와의 수평이 되도록 솔로 털을 세우고 깎는다.
 - 8) 좌골은 짧게 깎아서 윤곽이 뚜렷하도록 한다. 넓적다리는 옆으로 보아 털이 부풀어 있던가 안쪽에서 보아 살이 붙어 있던가 하면 젓소의 특징이 손상되므로

- 털을 잘 깎아 늘씬하고 아름다운 후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배선(背線)은 기갑부에서 미근에 이르기까지의 직선미가 나타나도록 털을 깎고 솔로 배선상의 털을 세우고 낮은곳의 털은 살리고 높은곳은 깎는다. 이발기들은 손은 소 몸체에 고정시키고 이발기의 앞날을 이용하여 깎는다.
 - 10) 뒷다리는 비절(飛節)부터 발목부위까지 곧게 스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굽은 뒷다리는 비절의 털을 보기 좋게 깎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다. 관(管)은 깨끗하게 깎아올려 넓죽하게 잘 다듬어진(臚)이 잘 나타나도록 한다.
 - 11) 앞다리는 무릎의 털을 짧게 깎는다. 다 큰 부분은 평활하게 이행하도록 털끝을 고르는 정도로하고 곧고 윤곽이 선명하게 한다. 특히, 다리·뒷꿈치에 털을 짧게 깎으면 가슴이 좁게 보이므로 털을 고르는 정도로 손질을 하면된다.
 - 12) 콧등을 남기고 머리 얼굴의 털을 모두 짧고 깨끗하게 깎아버린다. 귀도 안쪽과 아깁쪽의 털을 깎는다. 이렇게하면 머리의 윤곽이 선명하여지고 품위가 난다.
 - 13) 유방의 털깎기는 살갓을 강조하는 경향이 없어지고 몸과의 이행이 좋게하여, 유방의 힘이 있게하고 유방과 유정맥이 잘 나타나도록 털을 깎아 유방부위가 탄력있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
 - 14) 털을 다 깎고난 다음에 가위를 사용하여 뒷마무리를 한다. 털깎는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매출품전 4~5일이 적당하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7~10일전에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미리 털을 깎으면 서투르게 깎아서 흔적이 있는곳도 털이 자라서 모양이 좋게 된다.

출품우 관리(길들이기)는 왜 필요한가

낙농선진국에서의 품평회를 우리 농가들도 많이 다녀와서 알고 있는것과 같이 출품되는 젖소도 잘 손질되어 아름답지만 이런소를 안내하는 사람의 깨끗한 복장과 잘훈련되어 안내자가 원하는대로 움직여주는 가축의 조련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수가 없게된다.

이러한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국품평회에 출품되는 가축에 대한 길들이기 훈련과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무리 우수한 가축이라도 훈련이 안되어 있으면 행사장에서의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경매시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이 우리 농가들이 소홀히 하기쉬운 출품우의 관리(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출품우 길들이는 방법

1) 출품우와 출품우를 안내하는 사람이 한 몸이 될 정도로 밀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품우가 안정을 하도록 꾸준히 반복훈련을 실시하여 한다. 제일 먼저 출품우가 굴레에 익숙해 지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 2) 굴레에 익숙하여지면 걸음걸이가 안정되도록 평탄한 장소를 택하여 출품우를 걸리는 연습에 들어간다. 이때도 처음에는 굴레를 쥐고 걸리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출품우를 걸릴때에 주의할점은 출품우가 너무 급하게 걷지 않도록 안내자가 잘 조절을 하며 훈련을 시켜야 한다.
- 3) 훈련방법은 보통 하루에 한번정도 훈련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1번 훈련시 20분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기간은 1주일정도가 적당하다.
- 4) 굴레가 지나치게 크든가 굴레의 줄이 굵으면 보기에도 투박할 뿐만아니라 출품우의 얼굴 모양이 거칠은 인상을 주고 안내하는데도 불편하므로 얼굴에 알맞은 굴레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굴레의 보정을 왼손으로 굴레와 쇠고리 부분을 쥐고 고삐는 접어서 오른손으로 쥐며 이때 쇠고리 부분을 너무 힘을주어 당기면 소의 턱에 조임을 받게되어 소가 불편해하므로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잡는 것이 좋다.

